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188호 [루게 제 24966호] 주체 104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남새과학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남새과학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리재일 동지, 조용원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연구소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총부지면적이 143만 5,000여㎡인 평양남새과학연구소는 모든 공정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조절되는 현대적인 수경온실들과 박막온실들, 첨단생물공학연구실비들을 그뿐히 갖춘 최신식 남새연구 및 생산기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2012년 9월 능력확장된 평양남새과학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으로 인민들의 식생활과 건강증진에 결실히 필요한 갖가지 온실남새를 더 많이 생산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공급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 종업원들은 생산성과 영양가가 높은 여러가지 남새품종들에 대한 과학연구사업과 온실남새재배의 과학화, 집약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눈썹리 아득하게 펼쳐진 평양남새과학연구소의 온실들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멋있



다거나 보온효과를 높이면서도 추수와 같은 남새를 재배할수 있게 처리하였는데 정말 잘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남새과학연구소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연구소가 틀어쥐고나가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생물공학적 방법으로 맛있고 영양가 높은 다수확품종, 우량품종의 온실남새종자들을 새로 육종해내고 퍼지기 위한 사업, 세계적으로 이룩한 남새품종들을 풍토순화시키기 위한 사업,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기 위한 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온실 남새 재배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더욱 높임으로써 정보당 남새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늘이는것과 함께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다른 단위들에 널리 보급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어 진행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과학기술보급사업을 잘하자면 해마다 전국의 온실남새부문 일군들을 위한 과학연구 및 경험토론회를 진행하는것을 정상화하며 해당 부문의 편제밑에 온실남새재배와 관련한 지도서들과 각종 도서, 다매체편집물들도 잘 만들어 배포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다고, 온실바다를 보는것만 같다고, 규모가 대단히 클뿐아니라 연구와 생산이 결합된 자랑할만 한 기지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남새과학연구소에 오니 2011년 3월 새로 꾸려진 연구소를 찾으시어 현대적인 수경온실들과 박막온실들에서 신선한 남새들이 생산되는것을 보시고 그러도 만족해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이 떠오른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꾸려주신 평양남새과학연구소의 곳곳마다에는 장군님의 체취가 뜨겁게 어려

있다고 하시면서 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 종업원들은 온실남새연구 및 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자기들의 일터에 어려웠던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컴퓨터 조종실, 생물공학연구실, 수경온실들을 돌아보시면서 과학연구사업정형과 남새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번에 이곳을 돌아보면서 생물공학적 방법으로 남새과학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 정보당 남새생산량을 늘여야 한다고 지시하였는데 연구소에서 그

동안 많은 일을 해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연구소에서 다수확품종의 남새종자를 새로 육종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정보당 300t의 남새를 생산할수 있는 재배방법을 확립함으로써 온실마다에서 도마도, 고추, 오이를 비롯한 풍성한 남새작황을 마련하였다고 하시였다.

온실남새생산의 성과를 좌우하는 안정적인 열보장대책을 위해 지열설비를 새로 설치하였으며 남새재배에서 결실히 필요한 이산화탄소주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도 착실히 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박막온실 뒤벽을 보기에다 좋을뿐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더욱 높임으로써 정보당 남새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늘이는것과 함께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다른 단위들에 널리 보급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어 진행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과학기술보급사업을 잘하자면 해마다 전국의 온실남새부문 일군들을 위한 과학연구 및 경험토론회를 진행하는것을 정상화하며 해당 부문의 편제밑에 온실남새재배와 관련한 지도서들과 각종 도서, 다매체편집물들도 잘 만들어 배포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남새과학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 에 서 계 속  
평양남새과학연구소에 온실남새재배 방법을 배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것만큼 그들을 위한

숙소와 강습소도 잘 꾸려놓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과학자들의 생활상문제를 원만히 풀어주어야 그들이 연구사업을 더 잘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평양남새

과학연구소의 과학자들에게 살림집을 지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남새과학연구소의 온실마다에서 푸르

싱싱하게 자라고있는 갖가지 남새를 보니 기분이 좋다고, 침체상태에 빠지지 않고 약동하고있는 연구소를 돌아보니 기쁘다고 하시면서 온실남새농사를 잘하여 인민들이 그 덕을 톡톡히

보게 하자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실농사를 대대적으로 하라는것은 어제 오날에 와서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하고 하시면서 온실남새생산문제는 단순히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품을 들여 온실을 꾸려놓았다고 해도 관리운영을 잘하지 못하면 덕을 보기 어렵다고 하시면서 온실남새생산을 높은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끝장을 볼 때까지 밀고 나가야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갖가지 남새를 생산하여 인민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을 하루빨리 유족한 식생활의 향유자로 되게 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적극 밀어주겠으니 평양남새과학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 종업원들은 배심을 가지고 온실남새생산열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온실남새농사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하는 기수가 되라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남새과학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 종업원들이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려는 비상한 자각과 열의를 안고 온실남새연구와 생산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평양남새과학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가슴깊이 새기고 남새연구 및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인민들에게 사철 더 많은 남새를 안겨줄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 불멸의 친필과 더불어 빛나는 위대한 애국의 한평생

끝없는 그리움속에, 사무치는 그리움속에 7월의 날과 날들이 흘러가고있다.

### 《 김 일 성 》

1994.7.7.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기신 아홉 글자의 친필!

보면 볼수록, 새기면 새길수록 우리 수령님께서 바치신 애국애족의 한생과 필생의 열정이 비껴있지는 불멸의 글밭이어서 숭엄해지는 심정을 금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애국위업으로 내세우시고 조국통일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으며 민족의 숙망을 실현하는 길에 한없이 고귀한 업적을 남기시였다. 》

연인애의 남조선의 통일문제연구소의 한 성원은 《 김일성주석님의 친필에는 수천수만자에도 다 적을수 없는 위대한 력사, 민족의 통일을 위해 떨어지신 절세의 애국자의 빛나는 업적이 깃들여있다. 》

하기에 우리 민족 누구나 통일 친필비를 보면서 주석님을 드정경

경모하며 7월의 하늘가애경도의 열풍을 몰아오는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걱정을 리지였다.



남조선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위대한 애국의 한평생의 위대한 투쟁을 기념하여 세운 김일성주석님 친필비.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치신 애국애족의 한생과 필생의 열정이 비껴있지는 불멸의 글밭이어서 숭엄해지는 심정을 금할수 없다.

어버이수령님께 있어서 조국통일은 필생의 위업이었고 가장 절절한 념원이였다.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어느 하루, 어느 한순간에 수령님께서선 통일을 떠나 사신적이 없으시였다.

자신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실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며 불면 불휴의 사색과 정력적인 령도로 통일위업실현에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신 어버이수령님, 그 헌신의 나날속에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통일방안들과 친히 보여주신 미증유하신 통일문제를 그 열마이고 통일된 필렸던 잠도 푼 자고 마음놓고 하겠고 하시면서 자신의 생신날마다 쉬지 않고서 맛보고내신 낫과 밤은 또 그 열마이던가, 그렇게 나리워 민족을 사랑하시고 거메에게 조국통일이라는 크나큰 선물을 안겨주시리 통일을 위한 길이란 아무리 멀고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며

라도 쉬실것을 말씀드린 때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선 나라의 통일을 위한 중대사안에 어떻게 철수 있었는가고 하시면서 일순을 놓을념을 하지 않으시였다.

주제 83(1994)년 7월 7일, 바로 그날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선 북한 최고위급회담준비를 마무리하시느라고 분초를 쫓아 가며 사업을 하시였다.

수령님께서선 한밤을 지새우시며 조국통일과 관련된 중요한 문건을 보여주신 친필혼합으로 비추어주시였다. 그러시고선 한 일교내에 김정일동지에게 내거려 문건을 비추셨다고 보고하라고, 이때로만 하면 팔월 것 같다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하지만 그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민족과 력사에 남기신 마지막친필로 될줄을 그 누가 알았랴.

정녕 동시고금의 그 어느 력사칼피에도 우리 수령님처럼 80고령의 년로하신 몸으로 집무실에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나라의 통일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사다가 순직하신 위대한 인자, 절세의 애국자는 일찌기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후손들에게 같이 전하기 위해 판문점에 친필비를 세워 통일에 대한 뜻을 후세대에 물려주시고 싶으신 마음과 통일을 위하여 애국의 깃자애 곧게 묶어세우시는것이 동포사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라는 것을 지적한 성경동지들과 그곳의 청년사위원들은 자신들의 사업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그들이 조선사관으로서의 긍지, 책임감과 자부심을 안고 애국운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교양사업을 참신하게 벌리셨다.

특히 일변학에 다니는 동포학생들을 모두 학생회조직에 망라시키기 위한 사업과 졸업후 그들을 위한 대학에 받아들이는 사업을 동시에 내밀었다. 또한 청년사위 부회 문화체육사업들을 활발히 벌려 동포청년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이 동포사회의 주인이라는 책임감을 세겨안게 하였다.

이리하여 아이끼리형성하는 2012년에는 2개의 지역청년사회가, 다음해에는 3개 지역청년사회가 재건, 설립되게 되었다. 지금 아이끼리형성사회는 현인인 모든 지역에서 활동에 정상화됨을 목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이른바 토대가 마련된 조직을 다음세대에 넘겨주는것이 이것 정상화의 결정적 계기이다.

복잡한 정세와 엄숙한 시련애에서도 주유는 떨어지고 과정이 전진해나가는 이런 미묘한 정세적특성을 많이 애국의 대, 민족의 대는 굳건히 이어지고는 있다.

본사기자 라영국

## 위대한 래양으로 영생하시는 전설적위인

## 애국위업의 환경에서

###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조

사회주의조국을 방관하고있는 재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 단장인 배준열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담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서거 21년이 다가올수록 그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인류력사는 수많은 위인들을 기록하고있지만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세계지화위업실현을 위하여 자신의 한생을 정직하게 바친 위인을 알지 못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총련의 각종 조직들과 단체들은 동포대중속에서 군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각계 층 동포들을 더 많이 묶어세움으로써 재일조선인민운동의 대중적지반을 공고히 하고 끊임없이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

지금 재일동포사회가 애국운동을 새 세대 중심으로 전진할데 대한 총련 제23차 전체 대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 애국운동의 전위대로

한편 학생회활동, 강습 등 여러 가지 교양사업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더 많은 동포청년들을 조창조직에 enrol시켜나갈수 있게 하라고 하였다.

또한 총련의 1세, 2세들을 위한 생활모임을 조직하여 이력의 찬바람속에서 그들이 총련조직을 어떻게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라고 지적하였다.

그 결과 후우오가의 조창조직들은 동포사회에 생명력을 더해 주는 활력을 넘치게 되었다.

### 활기 넘친 조직으로

최근 청산회화각급 조직들에서 애국사업을 더욱 대대적하게 벌리고있다. 특히 아이끼리형성사에서는 최근년간 기층조직들을 확대강화하고 활발한 청년사관인들을 조직의 두리에 곧게 묶어세우는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5개의 지역청년사회를 재건, 설립하여 정

## 영원불멸할 김일성주석의 조국통일업적

## 국제사회계가 경건히 회고

민족분열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거메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리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을 국제사회가 열렬히 추종하고있다.

네팔신문 《아트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민족의 대양, 통일의 구상으로 영생하셨다. 그이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생을 불태우시였으며 조국통일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조선통일을 위한 국제정치 방향과 방법을 밝혀주시였을뿐 아니라 그 실천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였다.

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재 사상연구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파업으로 내세우시고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통일 위업에 모든것을 바치시였다.

주석께서는 수많은 조국통일 제안들을 내놓으시였으며 그 과정에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의 지침을 제시하시였다. 또한 그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과 해외의 수많은 동포들을 절친하시였다.

기네주재문화사연구소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친필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헌장은 1972년 북과 남이 발표한 7.4공동성명에 명기되어 전체 조선인들은 물론 광범한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속에 조선통일의 대강으로 되었다.

또한 1980년 10월에 제시하신 8조 12항의 8.25공동성명도 남조선과 북조선의 친밀한 협력을 위한 헌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자신께서

## 남조선

## 각계 단체들 반미투쟁 전개

## 남조선노동자 3만 5 000여명 서울에서 반 < 정부 > 투쟁 전개

최근 남조선에서 당국의 반인민적약정에 항거하는 인민들의 대중적 투쟁이 새차게 벌어지는 것과 동시에 미국의 범죄적책동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치솟으면서 반미 투쟁도 고조되고있다.

남조선의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 현대(코리아 현대)는 미국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순이, 미선이를 죽인 미군은 탄핵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물러가라!》라는 주제로 성명을 발표하였다.

단체는 성명에서 13년전 미군이 장갑차로 호순이와 미선을 깔아 물레차 천인공노할 죄악을 심판할 때까지, 온갖 추악한 미군범죄의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자를 처벌할 때까지, 미국이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려는 복심세력들을 철수시킬 때까지 정의로는 미군반대투쟁은 계속될것이라고 밝히면서 미군강점 70년동안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은 강요당한 우리 민족의 원한과 분노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코리아 현대의 념정인 2명은 《살인미군은 이 땅에서 당장 나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미제침략군을 저주한다는 배라들을 미국대사관주

변에 뿌리었다. 그들이 대사관을 향하여 돌진하자 바빠맞은 경찰은 그들을 저지시키고 체포하는 망동을 부리었다. 하지만 선봉전원들은 경찰에게 댕깁는 순간까지 진반대구조를 침착하게 유지하며 반미구호를 외치며 경찰의 체포소동에 격분한 코리아현대와 여러 시민사원들은 《호순이 미군을 물어내고 호순이와 미선이의 한을 풀자!》, 《살인미군에 다시금 강력히 경고한다! 탄핵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당장 나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힘찬 투쟁을 전개하였다.

서울의 청년학생들과 시민 1천여명도 미제침략군의 위험천만한 세력진출을 규탄하며 진반대투쟁을 고조하는 투쟁을 벌리었다. 진반대 등 수십개의 단체들로 이루어진 《전쟁반대 평화선도 국민행동》의 주체로 진행된 시위투쟁에서는 미제침략군의 탄핵권법반입을 고고도로 외치며 《호순이 배를 반대규탄하는 성명》을 발송하였다. 진반대 투쟁의 한 대표로는 미국이 살아있는 탄핵권을 오산미공군기지에 비밀리에 반입한 사실과 탄핵권보다 훨씬 더 위험한 보틀리누스군과 관련된 실험을 한것은 조선반도를 거역로 세균의 참화속에 몰아넣으려는 범죄적책동에 규탄하면서 미제침략군의 핵전쟁책동, 생화학전행의 피재하는 명백히 우리 민족이라고 개탄하였다. 그는 조선반도의 평화 지키는것은 전체 조선민족의 성스러운 의무이른것을 자각하고 북남사이의 대결과 북한전쟁을 몰아오는

직 확대와 일반예고를 기어이 강행하겠다는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 등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라도 노동자대항행위를 전면제거하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22일 노동시장구조에 악자를 위한 제조부분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벌리고 전지역의 각 지부들에서 일제히 집회들을 가질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박근혜를 사형!》, 《노동시장을 구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투쟁을 벌렸다.

한편 공공부문, 금융산업, 공동투쟁본부소속 노동자 1만 5 000여명도 퍼피정부의 노동시장구조악과 공공부문 민영화정책을 거역하여 대학로에서 집회를 가졌다.

집회참가자들은 《가자! 총파업!》, 《총파업!》, 《노동시장을 구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투쟁을 벌렸다.

그들은 당국이 임금인상없이 해고와 강요된 노동만을 강요하고있으며 로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부》가 운운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금융개혁》이라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공공기관들을 은밀히 수단으로 내보냈기때문에 본질에 있어서는 정권교체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것이다.

4대강공사 등에 엄청난 돈을 낭진 당국이 그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돌리려 하고있고 하면서 그들은 공공부문 민영화를 비롯한 반노동정책 저지를 위한 총파업투쟁에 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노동자들은 청계광장까지 시위행진을 벌렸다.

65년전에 일어난 조선전쟁은 미국 대조선침략에 당을 실현하기 위해 전면타격 계획하고 준비한 각본에 따라 남조선피괴를 사육하여 도발한 침략전쟁이었다. 미국은 조선전쟁 격본인 《북벌》계획을 주도세력 계로 작살하고 이에 따라 조선반도 주변지역에 항공모함과 전략 폭격기들을 비롯한 방대한 침략군력을 증강 배치하였으며 한편으로는 피괴들을 부추기고 적극 지원하러 하면서 《북진》소동에 나들었다.

지금 미국과 피괴들의 군사적 공모전략과 움직이들은 지난 조선전쟁전야를 방불케 하고있다.

하지만 미국과 피괴적책동에 심히 오산하고있다. 호전전쟁은 1950년대의 조선전쟁에서는 항복서에 등장했고 경우 살아남을수 있었지만 또다시 침략의 불을 지르다면 선군조선의 무자비한 보복의 불바람에 또다시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되리라 믿는다.

본사기자 라영국